

2015년 충청남도의 발전비전과 전략

송 석 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5년 충청남도 비전과 전략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3 + 3’ 행복삶터, 늘 새로운 충남

■ 2015년도의 충남도정은 공정과 신뢰, 사회적 정의를 확대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터」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부와 행정이 올바른 도리를 지켜서,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계층과 지역, 산업과 산업, 빈부의 격차를 뛰어 넘어 지역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민선5기」에 마련한 도정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 환황해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31%, GDP의 20%, 교역의 22%를 점하고 있고, 동아시아 항만 물동량은 1990년 26%에서 2015년 41%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환황해 아시아 경제권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는 우리 도가 직면한 과제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충남의 기회인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를 주도 할 수 있도록
▲ 민선5기부터 추진한 3대 혁신과제와 시대가 요구하는 「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21세기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시대 경부축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듯이 21세기에는 서해안이 대한민국의 신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충남은 이러한 지경학적 입지에 주목하고,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도 발전 전기로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都 충남」을 목표로 「서해안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 등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열어 나갈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 ❶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 → 국제물류 거점, 네트워크 도시체계구축
- ❷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관광 메카 조성
- ❸ 경쟁력있는 해양산업을 육성 → 수산업 미래산업화, 해양연관산업 육성

도에서는 앞으로 서해안 중추도시로서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에 힘써 나가면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서해선 고속전철,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녹색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부여 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충남 서해안을 동북아 관문으로 개발하기 위해 당진항 등 서해안 항만 기능보강,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여객선 운항 등 서해안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都(建道) 충남」의 미래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을 구성, 아시아(중국) 기업·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방안 등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민선5기 「3대혁신」으로 이룬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가는 「행정혁신」입니다.

민선5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혁신과제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고쳐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고 한 차원 높은 혁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어 공직자들의 열정과 자기주도성을 키워 나아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기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등 「제로-100프로젝트」 고도화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한편, 「3+3」 정책과제와 민선6기 핵심과제 중심으로 직무성과 계약 체결, 평가로 연계하여 성과중심 도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혁신」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실천하는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야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동네자치」를 육성해 나갈 현장 활동가 발굴, 조직화하여 동네자치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 재정 등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커뮤니티 중심, 유관기관 연합 등 도민이 쉽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인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3농혁신'입니다.

농어업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농업은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기본이자, 모든 경제활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어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농어업의 미래발전비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이미 민선 5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환경유기농을 향한 생산혁신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제도 등 농업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농업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이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조직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로 대변 되어지는 지역순환식품체계 내에 기본 물량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형 식품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살고 싶고, 한 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지역인재 육성, 도농상생발전시스템 구축 등 우리 농어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어민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민, 농정, 농협이 한 몸이 되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실현입니다.

행복한 성장이란? 각 산업역영간 골고른 성장,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며 환황해경제시대, G2체제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산업의 미래방향을 예측하여 충남의 장점을 기반으로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충남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고, 지역수요를 반영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조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산업발전 기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문화, 생활여건, 의료·복지, 환경, 근로생활개선 등 복합적 정주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우수 외투 기업과 국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면서 서민경제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복지 실현에 힘써 나아가고, 충남의 특화된 ICT 융합 문화콘텐츠 개발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구현입니다.

행복할 권리란?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 삶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생명과 인권이 우선되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다문화가족 등 계층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여성폭력예방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어려운 계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지원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집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 보육교사 양성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토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100세 시대, 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실현입니다.

행복한 환경이란? 하늘·땅·바다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까지 포함하며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추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물 복지」를 확대하고, 연안·하구 생태 복원을 위해 도내 방조제 전수조사와 법제화 등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LP가스 시설개선 사업 등 서민층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미술관 등 생활속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소외지역 방문공연, 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정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우리 도가 보유한 역사문화유산 지구를 잘 보존하여 문화재청과 지자체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 등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명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충남이 국정을 리드하고 도민의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21세기 가치실현과 지속성장, 국가와 지방관계 재정립 차원에서 지방이 제안할 국가정책 아젠더를 연구하고 국정의 지방 실현과정에서 지방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화하는 등 도가 시군을 지원하고, 국정 운영을 이끄는 도다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민과 관의 협치를 강화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면서 주민이 주인되는 도정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민 주권시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2015년도 충남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방향으로 도정의 각 분야별 현안업무와 계획들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고 추진하여, 2015년도에 성과중심 도정을 실천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